

“복지는 제 삶의 소명...더불어 사는 세상 앞장”

‘복지부장관 표창’ 김영기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복지는 선택이 아닌 제 삶의 ‘소명’입니다. ‘사람 중심 복지 도시’ 광주가 꽃피울 수 있도록 끝까지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37년간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데 헌신해 온 김영기(70·패밀리전문요양원 시설장)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김 회장이 평생 실천해 온 ‘사랑과 봉사’의 결실로, 시설 운영에 있어 입소 어르신은 물론 보호자와의 진심 어린 소통, 직원들과의 따뜻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가족 같은 요양원’을 만드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회장의 복지 인생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비인가 시설 봉사와 물품 후원으로 시작한 나눔은 1997년부터 독거노인 연탄 배

37년간 발로 뛰는 ‘현장 복지’ 귀감

장애인-봉사자 1대1 연결 복지 질 ↑

‘아너 108호’ 가입·후학 양성 매진도

달과 밀반찬 지원, 명절 위문 등 ‘발로 뛰는 현장 복지’로 이어졌다.

2001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한울복지회를 설립했고, 2006년 사회복지법인 한울복지재단으로 발전시켜 ‘퇴직에서 요양까지 어르신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인 생애 복지의 기틀을 닦았다.

특히 김 회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과 ‘시스템’을 고민한 혁신가였다. 그는 2002년 노인들의 연륜을 활용한 ‘전통 반찬(김치) 사업’을 기획, 시장 배달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획기적인 노인 일자리



지난 37년간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데 헌신해 온 김영기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모형을 선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우수 사례로 선정돼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또한 (사)복구장애인복지회 설립 당시 산과 역할을 자처하며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 장애인과 봉사자를 1대1로 연결하는 ‘우애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복지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2010년부터 10년간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및 대학원 초빙교수로 강단에 서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접목한 강의로 수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길러냈다.

2020년에는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터’ 광주 108호 회원으로 가입, ‘노블레스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

김영기 회장은 4일 “복지는 제 삶의 소명이고 같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며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면서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가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상부상조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오룡호반아름퓨터공립어린이집

행사 모금액 70만원 무안군 기탁

무안군은 4일 “지난 2일 오룡호반아름퓨터공립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 모금액 7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원아 18명이 직접 참여해 모금액을 전달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오룡호반아름퓨터공립어린이집 아나바다 행사는 원아들이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도서·생활용품 등을 모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활동으로, 자원 절약과 재사용의 의미를 체험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됐다.

조유진 원장은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탁금이 소중한 곳에 잘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어린이들이 참여한 기부라 큰 의미가 있다”며 “전달받은 모금액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룡호반아름퓨터공립어린이집은 매년 아나바다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친환경 교육 및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



진도 군내파출소 ‘찾아가는 면허시험’ 호응

진도경찰서 군내파출소는 “최근 진도군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진도군가족센터와 협력해 ‘자동차 운전면허 출장 학과시험’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리적 특성상 나주 면허시험장까지 이동하기 힘든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교통안전 교육부터 필기시험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됐으며, 시험에 응시한 17명은 전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베트남에서 귀화한 합격자 김모(26·여)씨는 “면허를 따려면 나주까지 가야 해서 업무가 안 났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줘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꼈다”고 감사를 전했다.

임진영 진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이동이 불편한 도서 지역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면허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희 군내파출소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진도·조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학과 시험을 추진해 현재까지 270여명을 합격시키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진도=박세권 기자

결혼

▲임승빈·김라미씨 장남 진혁(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김환철(당양자치신문 대표)·김선남씨 장녀 민주(서울 초등교사)랑=6일(토) 오후 2시 더컨벤션 반포 그랜드볼룸을(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08, 02-6243-6000, 010-8915-4631).

▲김성택·김광순씨 아들 옥진(이해용·박옥실씨 딸 송희양=13일(토) 오후 4시 메리포텐웨딩홀 메이에르홀(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빌딩(0507-1401-4170).

▲이정형·강영희씨 아들 원창균, 신승식·오형욱씨 딸 현선양=13일(토) 낮 12시20분 Jn아트컨벤션 2층 제이드팔리스를(경기 광명시 비전5로 20-46), 031-653-5300.

북구·북구새마을회 ‘묘목 스마트팜’ 쿠웨이트 진출

광주 북구와 북구새마을회가 극한 기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첨단 농업기술로 중동 진출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쿠웨이트 최대의 원예·조경 전문기업인 잘잘라 그룹의 파이살 알란카위 총괄매니저 일행이 지난 2-3일 이틀간 방한해 광주·전남 지역의 첨단 스마트농업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일행은 북구새마을회 회의실에서 열린 ‘묘목스마트팜 업무 보고회’에 참석해 북구가 추진 중인 스마트 모종육묘 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기술 적용 사례를 설명 듣고 질의응답을 했다.

이후 나주 소재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첨단 농

업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쿠웨이트 기후에 최적화된 기술 도입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어 북구청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및 쿠웨이트 현지 조경 프로젝트와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북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약 35만달러(USD) 규모의 스마트팜 도입 계약을 성사시켜 한국 기술의 쿠웨이트 원에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향후 스마트농업 공동 개발, 교육 협력으로 확장될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찬웅 기자

담양군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담양군은 지난 2일 민원 처리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민원행정 종합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받은 포상금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철원 군수와의 소통 간담회에서는 공무원들이 민원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 시

스템 개선 의견 등을 가감없이 털어놓으며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은공예와 가족공예 등 심신 치유를 위한 체험형 재정비(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정당한 친절은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에서 비롯된다”며 “변화하는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목포 봉사단체 ‘만원의 행복’, 후원자의 밤 송년회

목포 지역 봉사단체인 만원의 행복은 “최근 50여명의 후원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및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송년 모임을 넘어 지역의료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봉사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청연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목포 만원의 행복은 2020년 10여명이 모여 목포아동원을 후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7개 시설에 170여명의 후원자가 참여하는 지역 대표 나눔 모임으로 성장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후원금은 1억여원에 달한다.

김호한 대표는 “한 사람의 만원은 커피 두 잔



값이지만 한 달 170명의 만원이 모이면 170만원이 된다”며 “8·9·10월으로 확장하며 후원의 한계를 두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꾸준히 찾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선기 기자

김성진 와이마트물류 대표, 전남대 발전기금 기탁

전남대학교는 “최근 김성진 와이마트물류 대표가 발전기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김성진 대표는 2014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학생들의 든든한 아침 식사를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총 8번을 기부하며 누적 기부액이 9천5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에는 2천500만원 상당의 쌀 500포를 기부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번에도 학생들의 아침밥 지원을 위한 1천만원과 대학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김 대표는 “어린 시절의 배고픔을 떠올리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만큼은 식사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대학 발전을 위해 꾸준히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근배 총장은 “대표님의 나눔에는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깊은 사랑과 철학이 담겨 있다”며 “대표님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든든한 밥 한 그릇과 함께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선욱 기자

하나님의 교회, 광주 푸른길공원에서 ‘희망의 숲 캠페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 3일 광주 푸른길공원에서 낙엽과 마른 담뭍·잡초,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희망의 숲’ 캠페인을 전개했다.

하나님의 교회 신자와 이웃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공원 일대 낙엽, 비닐봉지, 담배꽂초, 플라스틱 컵·빨대, 음료 캔 등 쓰레기 약 100kg을 수거했다.

또 공원 한쪽에 산불 예방과 사막화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패널 전시를 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봉사자 박주미(25)씨는 “작은 실천이 주변 환



경을 얼마나 깨끗하게 변화시키는지 느낄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환하게 웃었다.

/서형우 기자

해남경찰, 민·경 협력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해남경찰서는 “최근 시민경찰연합회 회원 20명과 합동으로 송지면 강남마을을 방문해 민·경 협력 공동체 치안 활동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시민경찰학교 졸업생들로 이뤄진 연합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도배·공간 분리·형광등을 점검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2014년부터 지역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10차례에 걸쳐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안형주 해남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삶



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민·경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